

5·18 계엄군 '차륜형 장갑차' 운용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내에 투입된 차륜형 장갑차의 모습. <국가정보원 제공>



5·18 관련 기록 사진 중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연행되는 시위 학생들의 모습. <국가정보원 제공>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표 증언을 뒷받침하는 '계엄군 차륜(車輪)장갑차' 운용 모습이 담긴 국가정보원 사진 자료가 공개됐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자료를 통해 최초 발표와 관련된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헬기 출동과 차륜장갑차 운용' 등 계엄군의 전력 강화가 '시민군의 차륜장갑차 탈취' 때문이라는 일부 왜곡된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계기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케도식 장갑차에 비해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차륜장갑차를 이미 계엄군이 사용하고 있었기에, 시민군의 차륜장갑차 탈취가 계엄군의 헬기 및 차륜장갑차 투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국가정보원은 5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22건, 1242쪽의 기록물 및 사진 204장을 찾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추가 제공했다.

국정원, 5·18 관련 기록물 22건 1242쪽·사진 204장 찾아 추가 제공

박지원 원장 "조사위와 적극 소통 지속적으로 자료 발굴·공개하겠다"

이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정원을 찾아 이 같은 자료를 직접 검토했고, 조만간 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의 목록을 전달받았고, 사진과 영상 자료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날 오전 검증 절차가 시작됐으며 다양한 분석과 고증, 기존 자료와의 비교검증 등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공 자료는 중앙정보부가 당시 국내 각 분야 동향을 수집·생산한 중요 보고서 17건(832쪽), 당시 국내 상황을 보도한 해외 언론 기사

와 외국 정보기관 반응 보고서 등 5건(410쪽)이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도 국정원과 조사위가 함께 검토한 사진 204장 중에는 5·18민주화운동 초기, 시위학생 연행 사진 및 차륜형 장갑차 사진 등도 포함돼 있다.

진상조사위는 "차륜형 장갑차 사진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표는 광주와 앞길에서 바뀌고 고장난 차륜형 장갑차에서 이루어졌다. 그 장갑차를 제외하고 다른 계엄군 장갑차는 모두 케도형이었다'는 진술과 문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8월 11일, 11월 4일과 2021년 2월 9일에 이어 이번엔 네 번째로 자료를 지원했으며, 지금까지 총 101건의 문서(6888쪽)와 사진 257장, 영상자료 1건을 제공했다. 이 중에는 해외 각국을 대상으로 5·18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겠다는 계획과 해외 언론의 '북한 개입설' 보도를 국내외에 홍보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앞으로도 조사위와 적극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발굴·지원해 5·18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간부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대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안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순천서 이틀새 12명 코로나 신규 확진

여수도 1명 ... 대부분 고령 '비상' 광주는 상무지구 유흥업소서 발생

순천과 여수에서 이틀 새 코로나 19 확진자가 13명이 쏟아졌다. 확진자 발생 장소 및 동선에 의료기 판매업체, 의원급 병원, 종합병원 응급실, 보습사 콜센터,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돼 있어 추가 감염자 속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에선 우려했던 상무지구 유흥업소 발 감염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전남에서 모두 1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남 누적 확진자는 931명으로 늘었다. 네팔과 미국에서 입국, 나주로 온 해외 유입 사례 2명(전남 921, 922번)이 포함됐다.

지역 감염 환자 13명은 순천과 여수에서 각각 12명, 1명 발생했다. 전남 918-920번, 전남 923-932번이다. 조곡동 동부외과의원 관련 확진자 8명(여수 1명 포함), 선크스 의료기기 판매 대리점 관련 4명(방문자 3, 직원1), 성가톨릭 응급실 방문자 1명이다. 50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두 60-80대 고령으로 이들은 동부외과의원과 의료기기 판매소를 꾸준히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오후 전남 918-920번 확진자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이며, 성가톨릭병원 응급실을

찾아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역학 조사결과 이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동부외과의원을 최근 들른 사실이 확인됐다. 밤사이 접촉자 등 315명에 대한 검사를 벌여 9명의 추가 감염자를 찾아냈다. 범위를 넓혀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다수 확진자가 나온 순천 조곡동 동부외과의원을 다녀간 80대 고령의 여수시민 1명이 추가 확진됐다.

확진자가 나온 외과의원, 의료기기업체 일 방문객이 100명 안팎인 점, 확진자 동선에 순천에서 제일 큰 성가톨릭병원과 덕암동 지오스파(목욕탕), 보습사 콜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순천시는 확산 차단을 위해 이날 정오부터 11일 자정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전

남도는 순천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인지 여부를 검사 의뢰하는 한편 도내 의료기기 판매·체험 업체 70여 곳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에 나섰다.

광주에선 지난 4일 5개일만에 신규 확진자 '0명'(해외유입 포함)을 기록한 지 불과 하루만 이날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3명의 확진자(누적 2223명)가 추가됐다. 이 중 2명은 상무지구 한 유흥업소 종사자이며 1명은 대전 확진자의 접촉자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같이 일한 경기 안전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순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는 금요일(9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는 수요일(7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 선정 1차 목표"

이용섭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은 5일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지역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책을 강구해 빨리 예비 후보지가 선정되도록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현재의 '기부대양어' 이전 방식으로는 4500억원 상당의 지원 사업을 해 줄 수 있는데, 이 정도 지원 규모로는 이전 지역에서 군 공항을 받기 힘든 측면이 있다. 획기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부대양어를 원칙으로 하는 특별법을 고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법 개정을 전제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시장은 "일단 이전 지역에 군 공항을 우선 지어주고 현 공항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어 방식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예를 들면 이전 지역에 KTX를 경유하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고 항공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옮기는 등 국가차원의 대규모 지원사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또 "군 공항 이전 지역에는 인구 수천 명이 늘고, 사회 간접자본이 확충되고, 관련 공공기관까지 가게 되면 광주와 이전 지역이 상생하는 동반 성장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해 이전 대상 후보지 주민들이 오히려 유체에 나서는 방식으로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은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제시하고 공모를 통해 유치 경쟁을 하는 토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구상과도 일치한다.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광주시와 전남도가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는 지난 2일 첫 회의를 하고 광주와 전남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화 '자산어보' 촬영지 신안 섬이 뜬다 ▶2면

굿모닝 예향 - 광주·전남 골목길 ▶18-19면



프로야구 전망대 - KIA 마운드 테스트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Mercedes-Benz Certified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21개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증대
- 1년 / 2만km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 (1년 / 2만km 선도래 적용)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초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초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